

민주 '대선 레이스' 돌입... '호남정치' 실종 현실화

‘지역 목소리 반영’ 중량급 부재
초선 의원 대부분... 존재감 부족
李캠프, 박근혜 의원·허민 교수뿐
“선거철마다 ‘호남 홀대론’ 안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호남의 목소리’를 낼 지역 중량급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비명계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7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9일 미국 순방을 위한 출국길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 내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정작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정치는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호남 출신 ‘잠룡’으로 분류됐던 중량급 인사들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호남 정치가 힘을 잃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호남 표심은 민주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대권 경쟁 속에서 텃밭인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호남 대표주자’를 공언하고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8일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낙연·정세균·임종석 등 호남 출신 ‘잠룡’으로 분류됐던 중량급 인사들도 출마 선언은커녕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호남 출신 정치인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유일하다.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호남으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중량급 있는 호남 출신 정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 원내대표가 10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치인 부재가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전남 22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 비율은 18명 중 11명으로 61.1%에 달하면서 대선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대에도 초선 의원은 13명으로 72.2%에 달했다.

전남의 경우 5선의 박지원(해남·완도·진도),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 신정훈(나주·화순),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재선 김원익(목포), 주철현(여수갑) 등 광주에 비해 대선 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으나, 민주당 지명직 최고 위원이었던 주철현 의원이 지난 1월31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중앙당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 창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도 ‘호남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캠프 인선이 ‘계파 통합형’ 구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주요 직책에서 광주·전남 의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물로는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갑)과 정책과 공약 설계를 주도하는 정책 집단인 ‘성장파 통합’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교수 등 2명이 전부다.

이에 대선 과정에서 후보 공약에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간주돼 왔으나, 지난 4·2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담양군수를, 고흥군의원에 무소속 정치인의 손

을 들어주면서 호남민들이 민주당에 심판의 회초리를 든바 있다”며 “‘정권 교체’가 국민적 열망이 된 만큼 민주당이 이번 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강성희(왼쪽 두번째) 진보당 전 의원이 10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선거철마다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이 언급되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2026년 지방선거도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2025 봄날의 꽃, 봄밤의 빛
화순봄꽃축제
 2025. 4. 18. (금) ~ 4. 27. (일)
 화순 남산공원 및 꽃강길 일원

화순군 Hwasun-gun

낮에는 꽃강길에서 봄꽃을,
 밤에는 남산공원에서 야간경관을!

문의 : 061-379-3575~7 <https://www.hwasun.go.kr/festival> 화순을 새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1면서 계속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꼽았다.

그는 “어떤 방법이나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개 공직자는 중요하고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두니 (일이) 엄청나게 쌓인다”면서 “모든 일이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큰일은 큰일대로 고심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마선언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사는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억압하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데, 이번에도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면서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할 테고, 그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